

연행록의 전승현황과 그 문학담론

임 기 중**

차 례

- | | |
|---------------|---------------|
| 1. 머리말 | 3-2. 작품 합평 |
| 2. 연행록의 전승 현황 | 3-3. 시와 시화 |
| 3. 연행록의 문학담론 | 3-4. 시로 하는 대화 |
| 3-1. 문학 정보 | 4. 맺음말 |

1. 머리말

이 글은 구두 발표를 한 발표요지이다. 발표 후에 이 논문집보다 관련 저서가 먼저 출간되어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연행록은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문헌군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의미와 대단히 광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록유산이다. 연행록은 한국의 사신들이 원·명·청 왕조 때 중국의 수도에 나가서 그들이 해낸 일,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준 것, 받은 것, 체험한 것 등을 구체적이며 현장감 있게 써놓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기록유산의 하나이다. 원나라 때 중국을 다녀온 기록은 빈왕록(賓王錄)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명나라 때 중국을 다녀온 기록은 조천록(朝天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고, 청나라 때 중국을 다녀온 것은 연행록(燕行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다. 그래서 조천록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과 연행록이란 용어를 명·청 왕조를 변별하는 용어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까지 생겨났다. 그러나 명나라 때 중국을 다녀온 기록에도 연행록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3종이나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넓은 의미로 원·명·청 왕조 때 중국을 다녀와서 쓴 글을 연행록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쓰기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연행록이란 용어는 한국인이 원·명·청 왕조에 중국을 다녀와서 써놓은 일반 기행록을 포함한 사행록(使行錄)을 일컫는다.

연행록은 고려부터 조선 왕조까지 7백여 년 동안 한국인들이 외교적인 통로로 중국에 나가서 보고들은 견문과 선진문물에 대한 체험들을 자유롭고 창의성 있게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과 동아시아, 동아시아와 세계 외교의 역학관계, 공식 비공식의 국제무역과 경제적 상황, 문화교류와 첨단 학술 교류 등 아주 다양하고 많은 양의 정보가 생생한 모습으로 알알이 박혀져 있다. 연행록은 북경까지의 사행 노정, 제반 사행 의식과 절차, 중국의 역사와 전통과 제도,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 북경의 서적 정보와 학술 활동, 중국의 전통 연회와 서양의 최신 연회, 북경의 서양 문물과 서양 서적, 중국과 서양의 과학기술, 그리고 민정, 풍속, 문학, 언어, 지리 등을 기본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한편 연행록에는 중국 쪽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기록들과 중국 쪽에서 소홀하게 기록한 것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들도 적잖이 존재한다. 따라서 연행록은 동아시아 어느 분야의 연구에서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다양하고 방대한 기록의 보고이다.

그동안 이러한 연행록이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보인 이는 중촌 영효(中村榮孝), 김성칠(金聖七), 고병익(高柄翊),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所), 황원구(黃元九), 전해종(全海宗), 최강현(崔康賢), 임기중(林基中), 부마진(夫馬進) 등과 그밖에 몇 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각기 다른 관심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던 까닭으로 전체적인 전승 규모를 파악해 내지는 못하였다. 전승의 실상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의 정리가 불가능하였으며, 정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만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당면과제를 극복하는 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청되기 때문에 정보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아직 숙성되지 않은 글로 이런 발표를 하기

로 작성하였다.

2. 연행록의 전승 현황

연행록 전승의 전반적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행의 목적, 연행사의 구성, 연행 회수 등에 관한 체계적이면서 종합적인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이런 문제와 관련된 계량적 통계가 몇 번 제시된 일이 있다. 전해종(全海宗)은 1637년부터 1894년까지 조선이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은 607번에 달한다고 하였으며,¹⁾ 황원구(黃元九)는 청나라 때 정기 사절의 기록만도 최소 249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²⁾ 전해종의 통계로 본다면 조선 사신이 청나라에 다녀올 때마다 그 일행 중 한 사람만 연행록을 썼다고 해도 청 대의 것만 최소 607종의 연행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황원구의 조사에 따른다면 조선의 정기사절이 청나라에 간 것은 249회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조사 통계작업의 종합화나 이에 관한 신뢰성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아직 정리되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행록 전승의 계량적 추정을 해보기 위해서는 불가피 이와 관련된 작업을 직접 해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 1271년부터 1893년까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통문관지, 동문회고, 승사록(乘槎錄), 연행록류, 문집류 등에 있는 관련 기록을 조사하여 연행 연대, 중국의 왕조, 연행 목적, 연행사의 구성이 확인되는 원·명·청 시대의 역대 연행사 일람표를 만들어 본 바 있다.³⁾ 그 표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추가 보완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 일람표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실을 확인하여 볼 수 있다. 조선 사신이 원·명·청에 사행한 총 회수는 579회이다. 그것을 시대별로 살펴본다면 원대(1271~1368)에 1회, 명대(1368~1636)에 82회, 청대(1637~1912)에 497회이다. 이 통계로 본다면

1) 全海宗, 中韓關係史論集, 중국사회과학원출판사, 1994. p.194.

2) 黃元九, 燕行錄研究의 課題, 한국문학연구, 제24집, 2001.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3) 임기중, 연행록연구, 일지사, 2002.6.30. pp.12~29 참조

4 한국문학논총 제 31 집

연행록은 최소 579종 이상이 전승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1회 연행할 때마다 2종 정도의 연행록을 썼다면 최소 1천여 종의 연행록이 전승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역대 연행사 일람표를 보완하여 가면서 연행록의 전승 실상을 좀 더 추적하여 간다면 대략 6백 여종의 연행록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여본다.

이제 연행록의 전승 현황과 그 수집과 정리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필자가 최근까지 찾아본 독립성을 가진 연행록은 모두 418건이다. 여기에는 별다른 특색이 없는 이본 성격의 것이어서 거론대상에서 제외시킨 20여종을 더하면 저자는 대략 440여건을 연행록을 살펴본 셈이다. 그 중 연행록의 작자가 확인된 것은 418건이며 아직 작자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18건이다.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확인 작업을 펼친다면 대부분 작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대별로 보면 원대가 1건, 명대가 141건, 청대가 294건이다. 여기에는 연행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독립 노정기 3건, 발문류 4건, 독립 별장류 3건, 지도류 7건을 포함시켰다. 이 중에서 저자가 수집 완료한 것은 이미 연행록전집 1~100권⁴⁾과 연행록전집 일본소장편 1~3권⁵⁾으로 펴낸 바 있다. 위 7건의 자료를 포함시킨 까닭은 이 분야의 연구에서 그 자료 활용도를 고려한 때문이다. 가령 채계공(蔡濟恭)의 제이죽천항해승람도후(題李竹泉航海勝覽圖後)나 오재순(吳載純)의 항해조천도발(航海朝天圖跋)을 찾아내 수록함으로써 항해조천도 4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점과 혼미를 극복하게 한 것과 같은 사례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한국소장 미수집본 40여건을 모아서 출판한다면 필자가 찾아본 것은 모두 학계가 쉽게 참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단편적인 연행시(燕行詩)도 참람이 살펴보고 그 목록을 만들어 보았지만 이번 103권의 책에는 대부분 제외시켰다. 이 유형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확정된 뒤에 그 출판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 이번에 수집하여 정리한 연행록들은 그 해제집을 별책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우선 당면한 과제이다. 그리고 저자가 아직 찾아내지 못한 연행록이 상당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행록의 전승 현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현황

4) 林基中, 燕行錄全集 1~100,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10.25.

5) 林基中·夫馬進, 燕行錄全集 日本所藏編, 1~3,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1.11.25.

표를 만들어본 일이 있다.⁶⁾

그리고 전승의 실재 현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가 찾아본 연행록의 실상을 목록으로 꾸며 본 바 있다.⁷⁾

3. 연행록의 문학담론

연행록은 조선왕조와 명·청 왕조를 대표하는 특수한 담론연합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연행록에는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예술, 학문, 종교 등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풍부한 담론들이 존재한다. 이 글은 그런 담론들 가운데서 문학담론을 거론하려는 것이다. 조천록류가 고려와 명(1368~1392), 조선과 명(1392-1636)의 전형적인 조공관계가 만들어낸 기록물이라면, 연행록류는 조선과 청(1636-1894)의 의례적인 조공관계가 만들어낸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외교적인 공기록이 아니며 문학적인 사기록이다. 이런 기록물의 담당층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사류계층이기 때문에 비교적 수준 높은 문학성을 보여준다. 작자는 대개 상사·부사·서장관이나 그들의 종사관(從事官)들이다. 삼사(三使) 중에서는 서장관이 단연 많고, 그 밖의 작자 대부분은 종사관으로 수행한 문사들이다. 특히 종사관으로 수행한 문사들은 학술외교와 문화외교를 전담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시문(詩文)의 담론은 아주 중요한 외교의 한 수단이었다. 시문의 교류는 시주문종(詩主文從)의 방법을 택하였다. 시적 교류는 차운화답이 보편적이었으나, 차운화답과 그에 대한 합평(合評)으로 진행되는 때도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작시와 합평 과정을 통해서 양국의 문사들은 서로 상대국 문단의 수준과 경향을 탐지할 수 있었으며, 정치와 사회 현실은 물론 역사 인식의 단면들까지도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행록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시론(詩論)과 문론(文論)의 비교 연구에도 아주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학정보, 작품 합평, 시와 시화, 시로 하는 대화의 문제들을 실험적으로 살펴보려

6) 임기중, 앞 책, p.30 참조.

7) 임기중, 앞 책, pp.31~45 참조.

는 것이 이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은 위 담론들의 이론 구성을 실험하기 위한 탐색 단계의 글이다.

3-1. 문학 정보

연행록의 문학 정보 담론들은 그 질량 면에서 볼 때 앞으로 별도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시사적 접근에 머물 수밖에 없다. 김창업은 청나라 수재인 40대의 늑상생(廡庠生)을 만난다. 늑상생은 청나라 생원 제 1등급 관비생이다. 그는 곽여백(郭如栢)이란 선비였는데 호는 신보(新甫)이고 자는 확암(廓庵)이다. 수인사를 나눈 후 먼저 시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은 확암이다. 확암이 '저중근체(邸中近體)'라고 써서 김창업에게 내밀었을 때, 조선의 문장가 김창업은 '近體'라는 말의 뜻을 몰라서 당황한다. '體'가 '作'이란 뜻을 되물어서 안 뒤에야 동관(東關)에서 지은 절구 한 수를 내놓는다. 그는 도중에서 많은 시를 지었지만 청나라의 촉휘(觸諱는 금기임)에 저촉되어서 내놓을 수 없었다고 적고 있다. 조선 연행사에게 촉휘(觸諱)는 대개 그들의 대명관(對明觀)이었다.⁸⁾

여기에서 김창업은 근체와 촉휘라는 문학 정보를 접하고 체험한다. 지식은 축구공의 내부처럼 유한한 것이며 축구공의 크고 작은 것처럼 개인차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을 대표하는 50대의 문장가 김창업은 청나라 40대의 늑상생 앞에서 지식의 한계를 들어내면서 당황한다. 그러한 문제는 피차 당황할 이유가 없는 지식의 개인차에 속하는 것임에도 김창업의 인식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상황논리에서 기인한 조선 지식인의 불가피한 의식의 표출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조선 지식인들의 현실 인식과 그에 대한 주체적 대응이 적절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른 연행록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문학의 역사에서 검열과 그에 대한 저항의 문제는 동서고금에 많은 사례들이 존재한다. 기성의 질서로 구축된 권력과 가장 예민하게 충돌하는 것은 예술, 정치, 종교이다. 따라서 조선 연행사들의 긍정적이면서 가치지향적인 대명관은 청나라의

8) 金昌業, 燕行日記, p.144.

통치 이데올로기와 침예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이른바 청나라의 축휘(觸諱)라는 검열제도이다. 청나라 관원이 수시로 불의에 검열하는 시기도 있었으며, 조선 연행사들이 부지불식 간에 노출시킨 대명의식이 문제가 되는 때도 많았다. 명나라가 붕괴된 것은 지배계층의 극심한 부패가 몰고 온 필연적인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그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주체적이면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가치체계를 모색하여 진로설정을 하기보다는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존명의식에 안주하는 비생산적 향수주의로 전락해버림으로써 병자호란 같은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 청나라 검열에 대한 저항이 주체적이라기보다는 대명 의존적 성격이 강하여 명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나라 검열에 대한 그런 저항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한계에 이룸으로써 결국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못하고 만다. 따라서 조선의 연행사들은 청나라의 검열제도를 창조적으로 극복하지 못하지 못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서호수는 태화전 조참(朝參)에서 청나라 이조원(李調元)을 만난다. 그는 그로부터 15년 뒤 다시 연경에 다녀와서 쓴 연행기에 그 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雨村 李調元이 徐浩修에게 준 시
 莫道相逢不相識 서로 만나 모른다는 말을 마오,
 早朝門外馬 이른 아침 문 밖에서 손살같이 말달리리.9)

서호수는 그의 연행기에서 이조원이 “나와 왕복한 일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고 쓰고 있다.10)

서호수의 연행기는 정조 14년(1790) 건륭황제의 만수절에 진하부사로 다녀온 사행록이다. 서호수는 이 연행기를 쓰기 15년 전인 병신년에 연경에 간 일이 있다.

9) 徐浩修, 燕行記, p.165.

10) 徐浩修, 燕行記, p.165.

위 이조원의 시구에는 기민한 재치가 엿보인다. 그렇다면 이조원은 어떤 사람인가? 나환장(羅煥章) 주편의 이조원시주(李調元詩注)를¹¹⁾ 살펴보면, 그는 옹정 12년(1734)에 나서 가경 7년(1802)에 기세(棄世)하였다. 호를 우촌(雨村), 또는 동산(童山)이라 하였으며 건륭 년 간에 증진사를 한 후 여러 관직에 있다가 건륭 50년에 그의 고향 사천(四川)으로 낙향하였다. 그의 시는 이백의 시와 같이 호방 표일하고, 자연의 풍격까지 두루 갖춘 뛰어난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서호수는 우촌(雨村)의 종부제(從父弟)인 정원(鼎元)한테 들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촌(雨村)은 함해(涵海) 1부를 저작하였는데, 모두 185종으로 그 속에는 양승암(揚升菴)이 지은 40종과 우촌이 지은 40종과 그의 시화(詩話) 3권이 들어 있으며, 나와 왕복한 이야기도 자세히 기록하였다고 한다. 또 이서구, 유득공, 이덕무의 아름다운 글귀도 실었는데, 판 새기는 일이 겨우 끝나고, 우촌이 파직 되어 판각을 갖고 사천(四川)으로 돌아갔다 한다.¹²⁾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에 출판된 이조원시주에 대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우촌시화(雨村詩話)가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권이라고 한 것이나, 이조원이 조선 연행사의 시를 아주 중시한 것처럼 쓰고 있으나 그런 흔적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 이후의 조선 시와 이조원 시의 영향의 수수관계는 그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제는 후고의 과제로 미룬다. 우촌시화가 3권이라는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볼 수 있다. 만일 당시는 3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천에 낙향하여 10권으로 보완한 것이라면 정확한 정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정확한 정보가 아닌 정보의 오차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촌이 조선 연행사의 시문을 높이 평가하여 그의 문집에도 기록한 것처럼 쓰고 있지만 이는 피차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추정적 정보이다. 이러한 점은 연행록의 담론 분석에서 항상 정보 오차와 오정보를 고려하면서 평형감각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

11) 羅章煥 主編, 陳紅, 杜莉 註釋, 李調元詩注, 巴蜀書社, 1993.3.

12) 徐浩修, 燕行記, p.165.

이다.

3-2. 작품 합평

김정중은 연경(燕京)에서 청나라 선비 정소백(程少伯)의 집을 찾아간다. 정소백은 그의 형 평기(萍寄)와 그의 종자(從子) 십연(十然)과 함께 김정중을 반겨 맞는다. 이 자리에서 정소백이 분운(分韻)을 청하자 김정중은 당시(唐詩) ‘細論文’이란 글귀를 고른다. 그리고 소백은 ‘細’자를, 십연은 ‘與’자를, 김정중은 ‘文’자를 얻는다. 맨 먼저 조선의 김정중이 아래와 같은 칠언시를 짓는다. 그리고 이어서 청나라의 소백(少伯)과 십연(十然)이 시를 내놓는다.

金正中の 시
 吾生苦晚猶好古
 少讀河南夫子文
 座上春風門外雪
 恨未搗衣三沐薰
 後世雲孫在京國
 典形猶存特出群
 長安市上十萬家
 日夜車馬何紛紛
 忽到程氏草堂裡
 紙窗畫壁無塵氣
 纔然出戶喜折屐
 坐我胡床禮甚勤
 沉復番番一幅錦
 筆能二分詩三分
 温如滄海拾明珠
 皎若青山籠白雲
 逃矣扶桑千里外
 不意今行得吾君
 君家仲容眉骨奇
 咬菜脫粟窮典墳
 相看握手成三笑
 牙頰生香日已曛
 莫問平生我所爲
 四十五十今無聞

말세에 태어났으니 옛 것 좋아해,
 하남 부자의 글을 젊어서 읽었네.
 좌상에는 봄바람 문밖에는 눈,
 직접 뒹고 수업 못해 한이 되더니.
 후세에 먼 자손이 경사에 있어,
 전형은 남아 있고 무리에 빼어나.
 장안의 거리에는 십만 집이요,
 밤낮으로 거마만 어지러운데.
 정소백의 초당에 문득 이르니,
 종이 창문 그림벽 티끌도 없네.
 얼른 문에 나와서 몹시 반기고,
 호상에 나를 앉혀 예절 뒤으며.
 더우기 회디흰 한 폭 비단에,
 글씨도 좋고 시도 훌륭해.
 맑기는 창해에서 명주 거둔 듯,
 맑기는 청산 속에 백운 가둔 듯.
 머나먼 부상 천 리 밖에 있다가,
 뜻밖에 이번 길에 님을 만나니.
 님의 집 조카는 기품 잘나고,
 가난에 마음 편코 옛글 통달해.
 서로 보고 손잡고 삼소 지으니,
 입가에 향기 일고 날은 저물어.
 내 평생에 한 일을 묻지 마시요,
 마흔 넘어 선에 아직 무명이외다.¹³⁾

청나라 문인 정소백은 조선 연행사의 수행 문인 김정중이 지은 이 시를 읽고 “杜甫의 품위와 蘇洵의 기상이므로, 오랜 동안의 깊고 정교한 연구가 있지 않고는 이를 수 없는 시”라 평한다. 그리고 정소백은 김정중의 앞 시를 읽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짓는다.

少伯의 시
平生重交遊
動輒忘氣勢
仰睇古風遠
俯懷壯心厲
偶遊燕市中
放眼祛捍蔽
君從東海來
萬里結神契
語我殷俗存
井田規制
三代法物在
遵循仍勿替
詩書夙所好
禮義敢自勵
高談豁心骨
鄙俗忽已逝
譬觀滄海大
始覺衆流細
何時復來遊
行李不敢滯
相思如層雲
行行仰天際

평생에 벗 사귀기 소중히 여겨,
걸핏하면 기세를 잊어버렸네.
옛 풍도 깊은 것을 우러러보고,
장한 마음 굳셈을 생각했도다.
우연히 연경 안에 와서 지내며,
뜻대로 구경하여 답답 푸는데,
임자가 동해에서 이 곳에 오매,
만리 밖의 神交를 맺었네.
나에게 말하기를 은 풍속 남아,
정전 옛 제도 그대로 있고,
삼대의 좋은 문물 보존되어서,
지키고 바꾸지를 않는다 하네.
시서는 일찍부터 즐기는 바요,
예의는 감히 스스로 닦아 왔으니.
고상한 이야기에 심신 트이고,
비천한 습속이야 아주 떠났네.
비유컨대 바다의 큰 것을 보고서,
뭇 냇물이 작은 줄 알과 같아라.
어느 때나 다시 와서 노시렵니까?
여행은 감히 지체 못하오리다.
서로서로 그리움 구름 겹치듯,
가며가며 하늘만 우러러보리.¹⁴⁾

청나라 십연은 김정중의 앞 시를 읽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짓는다.

十然的 시
空齋忽不懌
新歲作羈旅

빈 방이 문득 싫어,
새해에 길 떠나니.

13) 김정중, 연행록, pp.451~454.
14) 金正中, 燕行錄, pp.451~454.

昨日城西來	성서에서 어제 와,
遠客乍容與	먼 데 손님 만났네.
相隔三千里	삼천리나 막혔거늘,
何幸班荊敘	다행히도 한 자리에.
況且春風吹	더구나 춘풍 불고,
龍團爲君煮	님을 위해 용단 달여.
呵凍略陳辭	붓 녹혀 얘기하니,
古今略備舉	고금 얘기 갖추어.
且作斯文談	성학을 얘기하니,
未暇問出處	출처 물을 겨를 없네.
珠玉既在望	글 솜씨 이미 높거늘,
敢云較角汝	감히 겨를 생각하랴!
慙無東道情	부끄럽다 주인다운 맛없어,
未克速肥羝	살찐 양을 대접 못하니.
但得風雲篇	풍운의 시편만을 얻어서,
歸爲錦囊貯	금낭에 담아 돌아가소서. ¹⁵⁾

김정중은 이 시를 읽고 “글자마다 (古雅)하므로 염락(濂洛)의 여파(餘派)라”고 평한다. 그리고 정소백은 앞의 김정중 시를 소중히 가보로 전해 후손들에게 천리 밖의 신교(神交)가 있었음을 알리겠다고 한다. 김정중도 두 사람의 시고(詩稿)를 가지고 돌아가서 서루(書樓)에 걸어두고, 때때로 읊으면서 잔을 들어 멀리 축원하겠다고 한다. 앞 세 편의 시와 시평(詩評)은 늘 있는 시회(詩會)에서의 작시(作詩)와 합평(合評)처럼 시(詩)와 평(評)을 서로 주고받는다. 이러한 작시와 시평의 담론들에는 항상 공통점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서로 긍정적인 평가를 위한 가치 발견하기이다. 따라서 담론 분석에서는 이러한 시평이 갖는 한계의 자각이 필요하다. 그러나 존재 가치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러한 시평 담론들이 갖는 의미는 아주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평 담론 분석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즉흥성과 편향성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합평과 문학정보이다. 박사호는 연경에서 청나라 선비 소천(小泉)의 별장을 찾아가 용재(容齋), 운객(雲客), 중봉(中峰), 백암(白菴), 소백(少白)을 만난다. 이 곳에서 그들과 함께 학문과 시문에 관한 이야기로 하루를 보낸다. 청나라 선비들은 영재집과 초정집을 이미 다 읽고, ”

15) 김정중, 연행록, pp.451~454.

12 한국문학논총 제 31 집

효효히 상고(尙古)한 기품이 있다”고 평할 만큼 조선의 시단 소식을 잘 알고 있다. 자하 신위, 종산 이규현, 호은 백한진, 지산 이만재 등과도 사귀고 있는 터였기 때문에 박사호와도 구면처럼 대화를 한다. 하루를 보내고 서로 헤어질 때, 운객(雲客)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은 오언절구 한 수를 지어 박사호한테 준다.

雲客의 시	
久矣聞君名	그대 이름 들은 지 오래던 차에,
君來行有日	그대 왔다 또 가게 되었네.
更勸君一廬	다시 한 잔 그대에게 권하여,
恩惠將惜別	총총히 이별을 아끼려 하노라. ¹⁶⁾

운객이 지은 이 시를 받아 읽고 박사호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서 답한다.

朴思浩가 화답한 시	
人生貴知心	인생은 마음을 알아 귀하니,
百年當一日	백년이 하루와 같네.
四座且停盃	만좌가 술잔을 멈추고,
聽我歌遠別	내 작별의 노래를 듣는구나. ¹⁷⁾

이처럼 청나라와 조선 선비집단 사이의 문학 정보교류는 점점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간다. 청나라 선비들은 이제 단순한 정보의 입수 단계를 넘어서 영재집과 초정집을 구해 읽고 평가하는 단계에 이른다. 상당히 깊고 폭넓은 정보가 비교적 정확하게 교류되고 문학 작품의 수수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문학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생성 기반이 마련된다. 이러한 기반의 생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식을 생성시켰으며 어떠한 규칙으로 작품을 창조하는데 기여하였는가는 앞으로 연행록 담론 연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박사호의 앞 시를 다음과 같이 평한다. 증봉은 “淸古하고 淡遠하여 참으로 樂府의 上乘이다”고 하고, 운객은 “원숙하여 마음을 쓰지 않고도 兩漢의 유풍을 터득하였다”고 평한다. 소천은 “지은이의 시가 아름답고 보는 이는

16) 朴思浩, 心田稿, p.253.

17) 박사호, 심전고, p.253.

안목이 높으니 紅塵十丈에 어찌 사람이 없다하리요”라고 평하고, 소백은 “시가 매우 고고하여 漢人의 뜻을 터득하였다”고 평한다.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전제한 긍정적 존재의 발견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행록 시평 담론이 갖는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특징은 시로 하는 외교, 시평으로 하는 외교라는 양국의 현실적 상황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문학담론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연행록의 시평은 상대방의 작시에 대한 일관된 긍정적 평가라는 새로운 규칙을 탄생시키고 있다.

3-3. 시와 시화

김경선(金景善)은 연경에서 서양추천을 본다. 서양추천이란 이른바 서양의 그네놀이이다. 거기에는 붉은 옷에 푸른 바지를 입고 술이 달린 검은 모자를 쓴 16명의 소년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제히 그네에 올라서 절조에 맞추어 허공을 오르내리고 완급을 조절하면서 신선처럼 논다. 조선의 김경선 일행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서양 서커스를 본 것이다. 김경선은 이색 체험을 하면서 “아주 기이한 기예”라는 평을 한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모기령(毛奇齡-청대(清代)의 사람)의 시화(詩話)에, ①“경사(京師)의 연회(宴會) 가운데에는 파간(爬竿)놀이라는 게 있는데, 곧 옛적의 심당(尋幢)놀이이다. 그 제도는 두 동자(童子)가 꽃무늬 배자에 붉은 바지를 입고, 장대를 타고 올라가서 거꾸로 서서 손을 휘둘러 춤을 추는 것인데 가장 기교 하다. 단지 배짱만으로 장대를 받치고서 그 손과 발을 마치 매[鷹]가 날개 펴듯 벌리고, 더러는 손을 장대를 받치고서 마치 원숭이처럼 붙어서 발을 떼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교묘한 놀이일 뿐이다. 일찍이 장평주(昌平州)에 문상 갔을 때 두 부인이 파간(爬竿)놀이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더니, 뒤에 왕건(王建-唐代의 사람)의 심당가(尋幢歌)를 읽게 되었다. 거기에,

몸이 가볍고 발이 날래기가 남자보다 낫다.

身輕足捷勝男子

라는 어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이는 여창(女娼)의 춤이지, 남동(男僮)의 춤은 아니었던 것이다. 다만 그 시에,

14 한국문학논총 제 31 집

짧은 상투를 거둬 빗질하여 금비녀 떨어뜨리고,
붉은 모자 푸른 수건이 각각 한쪽에 있구려.

重梳短髻下金鈿
紅帽青巾各一邊

라고 하였으니, 여창 몇 사람을 사용한 듯 싶다. 그들은 각각 짧은 상투를
빗질해서 장식을 풀고, 더리는 붉은 모자로, 더리는 푸른 수건으로 머리털을
싸매고, 두 줄로 나눈 다음, 장대를 붙들고 오르게 되었던 모양이다. 그러므로,

둘러 사면에서 먼저 오르려 다투네.

繞竿四面爭先緣

라고 하고, 또,

오르내릴 적에 절름거리는 발에는 모두 버선 신었네,

上下蹠躡皆著襪

라고 하였으니, 이 몇 사람들은 손으로 장대를 잡고 발등을 장대에 부착했다
는 것을 역력히 볼 수 있다.

다만 처음에는 ‘심당(尋樞)·대간(戴竿)’이 본래 두 가지의 춤[舞] 이름이라
고 생각했더니, 그 시의 뜻을 읽고 나서는, 한 가지 춤으로 여겨진다. 다음과
같은 시가 있는 것으로 보면,

백 명 남자가 들어도 일으켜지지 않을 큰 장대가,
간들거리며 반쯤은 푸름 구름 속에 있구나.
가냘픈 허리의 여인은 얼굴을 요동치 않고,
이고 다니며 춤 한 차례 추는 일 끝마치네.

大竿百夫擎不起
飄緜半在靑雲裡
纖腰女兒不動容
載行直舞一曲終

여창 한 명은 장대를 이고, 여창 몇 명은 장대 위에 빙 둘러서 춤을 추되,
장대를 인 사람은 그대로 태연하게 달리니 이른바 ‘얼굴을 요동치 않고 이고
다닌다.’는 이것이야말로 매우 신기한 일이다.

장북(江北)에 경제(擎梯)라는 놀이가 있다. 즉 한 부인을 반듯이 눕히고 두
발을 들어 위로 향하게 하고 사다리 두 개를 두 발 사이에 세우게 한 다음,
한 여동(女童)을 시켜 사다리를 타고 춤을 추게 하는 것이니, 이는 곧 심당의
유의(遺意)인 것이다. 그러나 누워서 하는 것과 다니면서 하는 것은 수고로움
과 편안함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것은 모름지기 건장한 부인으로서 힘이 센

자를 가려서 그 기예를 익힌 다음이라야 가하다. 다만 그 시에, 또,

홀어질 때엔 생생한 안색이 만면하지만,
다니는 걸음은 전처럼 기력이 없구나.

散時滿面生顏色
行步依然無氣力

하였으니, 비록 잘 형용한 듯하나, 힘이 없는 자로서는 능히 익힐 바가 아닌 듯싶다.” 하였다. ② 그렇다면 옛적의 심당은 이것과 서로 근사한 듯하니, 근대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또 여창의 재주가 더욱 기이할 것인데 궁궐 안이기 때문에 동자들은 시켜서 하게 한 것일까?18)(번호 ①②는 필자)

이처럼 작자 김경선은 서양 그네놀이를 보고 청나라 모기령(毛奇齡)의 시화(詩話)를 연상한다. 그 시화로 본다면 경사(京師) 연회 때의 놀이로 원래 심당(尋撞)놀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뒤에 파간(爬竿)놀이가 되며, 이 서양그네놀이란 것이 이미 있었던 그 파간놀이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해 본다. 당(唐)나라 때 사람인 왕건(王建)의 심당가(尋撞歌)를 볼 때도 그런 추정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심당대간(尋撞戴竿)이란 춤이 서양그네놀이의 연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작자는 강복의 경계(擎梯-사다리를 들고 재주를 부리는 놀이)놀이라는 것도 서양그네놀이와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 본다. 이처럼 작자는 해박한 지식으로 청나라 사람들이 서양 그네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심당놀이에서 나온 것으로 보려고 한다. 김경선은 심당놀이, 파간놀이, 대간놀이, 강복의 경계가 서양추천 같은 것이어서 서양추천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라 할 수는 없으나, 앞 심당놀이 유형은 두어 명의 여자가 한 것인데 서양추천은 16명의 동자가 하는 것만 서로 다르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궁궐 안이기 때문에 여창을 동자로 바꾸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서양추천이 새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청나라 모기령의 시화는 관회서사와 관회시로 구성되어 있다. 묘기령의 시화는 이처럼 파간, 심당, 대간, 경계놀이를 관회시와 관회서사로 쓴 것이다. 여기에서 관회시는 그 놀이의 구체적 실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현해 내고 있으며, 관회서사는 그런

18) 김경선, 연원직지, pp.20~25.

관회시의 부연설명으로 일관한다. 결국 관회시와 관회서사는 상보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관회시가 주이고 관회서사는 한낱 종속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화로 쓴 이 연회기는 연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단순한 연회서사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텍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김경선은 그의 연원직지에서 서양추천을 평가하고 묘기령의 시화를 들어 주체적으로 담론을 전개한다. 그리하여 불완전하지만 새로운 지식의 창조에 기여한다. 이러한 현상은 김경선이 연행에 앞서 기존에 생성된 많은 연행록을 광범하게 읽으면서 철저히 준비한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4 시로 하는 대화

상호간의 의사 표현 방법으로 시를 주고받음은 조선 연행사와 명과 청의 문인이나 관인 사이에서만 오갔던 특수한 외교관행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당시 외교가에 보편적으로 두루 존재했던 외교의 한 방편이었다. 그러한 보기를 하나만 들어본다. 같은 외교목적으로 청나라에 온 안남국의 이부상서와 공부상서가 서호수에게 자연스럽게 화답시를 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외교에서 외교관들이 어느 한 나라에 특정한 외교목적으로 나가서 그 나라에 모인 각 국 외교사절들과 각기 또 다른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현상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안남 이부상서 반휘익(潘輝益)이 조선 연행사 서호수의 화답을 청하면서 보낸 시로 다음과 같은 작품이 있다.

潘輝翼의 시
 居邦分界海東南
 共向明堂遠駕驂
 文獻夙徵吾道在
 柔懷全仰帝恩覃
 同風千古衣冠制
 奇遇連朝指掌談
 騷雅擬追馮李舊
 交情勝似飲醇甘

나라 경계는 바다 동남으로 나뉘었으나,
 다같이 명당을 향해 말을 몰아왔네.
 문헌엔 우리의 도 밝혀져 있고,
 돌봐주는 님의 은혜 뻗치기 바라네.
 의관은 천고토록 풍속이 같고,
 기이한 인연으로 아침마다 얘기 나누네.
 글 의는 풍(馮)·이(李)의 옛 일이 회상되니,
 사귀는 정 술맛보다 더욱 짙어라.¹⁹⁾

19) 서호수, 연행기, pp.212~214.

이 시를 받고 조선 연행사 서호수가 안남 이부상서 반취익에게 답한 시는 다음과 같다.

潘輝翼에게 화답한 徐浩修의 시	
何處青山是日南	어느 곳 청산이 일남의 땅이런가,
灣陽秋雨共停驂	만양의 가을비에 함께 말을 멈췄네.
使華夙昔修隣好	사신은 예전부터 인호(隣好)를 닦아왔고,
聲教如今荷遠覃	성교는 지금도 멀리 멀리 미친다네.
法宴終朝聆雅樂	아침내 법연에서 아악을 듣노라고,
高情未暇付清談	높은 우정 청담에 붙일 겨를 없었네.
新詩讀罷饒風味	새 시편 읽고 나니 풍미가 푸짐하여,
頓覺中邊似蜜甘	문득 속이 꿀맛 같이 느끼네. ²⁰⁾

앞의 반(潘)과 서(徐)의 칠언율시는 ‘帝恩’과 ‘聲教’를 찬양하고 기원하였다. 안남을 돌봐주는 청나라 건륭황제의 은혜가 앞으로 길이길이 뻗치기 바란다는 것이 반의 시고, 건륭황제의 덕이 지금도 멀리멀리 비치고 있다는 것이 서의 시다. ‘제은’과 ‘성교’는 군과 신의 관계면서, 군과 백성의 관계다. 따라서 반과 서는 청나라 황제의 신하이며, 안남인과 조선인은 결국 청나라 황제의 백성이라는 인식구도이다. 조공사행의 공통적인 관료의식과 외교관행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반과 서의 시에는 ‘指掌談’과 ‘付清談’으로 지속적 친선과 돈독한 우의를 강조하였다. ‘아침마다 얘기를 나눈다’거나 ‘청담에 붙일 겨를이 없다’는 언표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기보다는 제후국 안에 존재하는 같은 형제라는 숙명의식이 더 강하다. 이런 의식은 약소국의 한계를 자각한 생존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친선외교는 주체적이라기보다는 숙명적 유대를 강조하는데 불과하다. 이들이 시로 전개하는 담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몇 행의 시를 대비하면서 알아보기로 한다. 반과 서의 시 1행은 반의 ‘海東南’에 서가 ‘是日南’이라 답한다. 서의 시 2행은 반의 ‘遠駕驂’에 서가 ‘共停驂’이라 답한다. 반과 서의 시 4행에서는 반의 ‘帝恩覃’을 서가 ‘荷遠談’이라 답하였다. ‘해동남’이라는 것은 바다 동쪽에는 조선이 있고, 바다 남쪽에는 안남이 있다는 것이고, ‘시일남’이라는 것은 상하(常夏)의

20) 서호수, 연행기, pp.212~214.

나라가 곧 일남(日南은 안남입)이라는 것이다. 상대방 나라의 위치와 자연을 서로 이미 알고 있다는 친선 도모 성격의 첫인사이다. ‘원가참’과 ‘공정참’은 두 사람 모두 먼 나라에서 말을 몰아 청나라 연경(燕京)을 향해 왔고, 외교목적과 역할담당 또한 다르지 않다는 동질성을 내세운 것이다. 결국 이런 동질성은 황제의 은혜를 찬양하고, ‘길이길이’나 ‘멀리멀리’란 표현으로 그 은혜를 강조하며 기원하는 데로 모아졌다. 그리고, 반과 서의 시 5행에서 반의 ‘指掌談’에는 서가 ‘付清談’으로 답하고, 반과 서의 시 8행 반의 ‘飲醇甘’에는 서가 ‘似蜜甘’이라 답하였다. ‘아침마다 나누는 대화’나 ‘청담에 붙일 겨룰이 없는 우정’은 이제는 우정을 논한다는 것이 새삼스러울 정도로 친숙해진 사이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우정이 ‘술맛보다 더 길고’, ‘꿀맛같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당시 외교가의 화답시는 자연스런 대화의 도구로 쓰였다. 가장 적은 양의 언어를 동원하여 가장 많은 내용을 예모를 갖추어서 응축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시를 당해낼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시로 전개하는 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연행록의 화답시는 시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특수한 담론 양식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거론한 내용들을 요약하여 정리하여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된다.

조선 사신이 원·명·청에 사행한 총 회수는 579회이다. 그것을 시대별로 살펴본다면 원대(1271~1368)에 1회, 명대(1368~1636)에 82회, 청대(1637~1912)에 497회이다. 이 통계로 본다면 연행록은 최소 579종 이상이 전승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1회 연행할 때마다 2종 정도의 연행록을 생산하였다면 최소 1천여 종의 연행록이 전승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연행록의 전승 현황과 그 수집과 정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필자가 최근까지 찾아본 독립성을 가진 연행록은 모두 418건이다. 여기에다가 별다른 특색

이 없는 이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거론대상에서 제외시킨 20여종을 더한다면 필자는 대략 440여건을 연행록을 살펴본 셈이다. 그 중 연행록의 작자가 확인된 것은 418건이며 아직 작자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18건이다. 시대별로 보면 원대가 1건, 명대가 141건, 청대가 294건이다. 여기에는 연행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독립 노정기 3건, 발문류 4건, 독립 별장류 3건, 지도류 7건이 포함되어 있다.

연행록은 조선왕조와 명·청 왕조를 대표하는 특수한 담론연합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연행록에는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예술, 학문, 종교 등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풍부한 담론들이 존재한다. 이 글은 그런 담론들 가운데서 문학담론을 거론한 것이다. 연행록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시학(詩學) 일반의 비교연구나 문론(文論)의 비교 연구에 아주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학 정보, 작품 합평, 시와 시화, 시로 하는 대화의 문제들을 실험적으로 살펴본 것이 이 글이다. 연행록의 문학정보 담론 분석에서 주의할 점은 정보의 오차와 착오를 간과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평형감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연행록의 작시 합평의 담론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전제하는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현상은 연행록 시평 담론이 갖는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특징은 시로 하는 외교, 시평으로 하는 외교라는 한·중 양국의 현실적 상황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문학 담론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연행록의 시평 담론은 상대방의 작시에 대한 일관된 긍정적 평가라는 새로운 규칙을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연행록의 시와 시화의 담론은 불완전하지만 주체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창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행록의 시로 하는 대화 담론은 가장 적은 양의 언어를 동원하여 가장 많은 내용을 예모(禮貌) 있게 응축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시를 당해낼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된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행록의 화답시는 시라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특수한 담론 양식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제어 : 연행록, 담론, 고려왕조, 조선왕조,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화답시, 시학, 문론

참고문헌

- 임기중, 연행록연구, 일지사, 2002.
임기중, 연행록전집 1~100, 동국대출판부, 2001
임기중, 부마진, 연행록전집 일본소장편, 1~3, 한국문학연구소, 2001.
황원구, 연행록연구의 과제, 동국대 한국문학연구 제24집, 2001.
전해중, 중한관계사논집, 중국사회과학원출판사, 1994.
羅章煥 主編, 陳紅, 杜莉 註釋, 李調元詩注, 巴蜀書社, 1993.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행록선집 1~12, 민족문화추진회, 1986.

Abstract

The present folklore status of Yeonhangnok and the literary discourse

Lim, Key-Zung

Total times of dispatching envoys from Chosun Dynasty to the Dynasties in China such as the Yuan, the Ming and the Qing were 579th. By the period, envoys dispatched once during the Yuan(1271~1368), 82 times during the Ming(1368~1636) and 497 times during the Qing Dynasty.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as the above, it seems that Yeonhangnok should be handed down, at least, over 579 pieces(sorts). If we assume that a minimum 2 pieces(sorts) of Yeonhangnok might be written per trip every time, at least 1,000 pieces(sorts) of it should be handed down these days.

The present folklore, the condition of collection and arrangement of Yeonhangnok is as follows. The number of the distinctive pieces(sorts) of Yeonhangnok is 418 that I've found so far. In addition to the number of it, the total number would reach to 440 pieces(sorts), if the 20 pieces(sorts) of different versions were summed up that don't have specific features. Among them, the author of 418 pieces(sorts) was confirmed, on the other hand, 18 pieces(sorts) didn't find the specified author yet. By the era, there were 1 piece(sort) in Yuan, 141 pieces(sorts) in Ming and 294 pieces(sorts) in Qing. These pieces(sorts) include 3 pieces(sorts) of the individual itineraries, which are essential to understand and analyse Yeonhangnok, 4 pieces(sorts) of epilogues, 3 pieces(sorts) of distinctive chapters and 7 pieces(sorts) of atlases.

Yeonhangnok could be defined as a text which is a special collection of discourses representing the features of Chosun Dynasty of Korea and the Ming, Qing Dynasties in China. It includes so various and rich discourses about politics, economy, diplomacy, culture, art, studies, religion and so on. This study makes only the literary discourse of a subject of discussion. It has an invaluable worth as materials not only in comparison study of literary works but also for the research in overall study of poetry. From this point, I started this study in experimental way with the issues of discourses concerning literary data, joint review of works, poetry and pictures and dialogues by means of poetry. The standpoint to take close attention in analysing the discourse of literary data is that the researcher should not neglect the possibility of an error and a mistake in the data and has to keep the sense of equilibrium. The discourse of the joint review of versification in Yeonhangnok is starting from the premise that it is based on the positive evaluation. It is one of the features what the discourse in the joint review of versification in Yeonhangnok has. And it is thought that Yeonhangnok is one of the specified literary discourses since the features, mentioned above, are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 poetry and criticism was a method of diplomacy between Korea and China. Therefore the discourse of criticising poetry created new rules of positive evaluation to the versification of the other party constantly. The discourse of the poetry and illustrated poem in Yeonhangnok made its feature contributing the creation of new knowledge, even though it seems to be incomplete. The discussion appeared in Yeonhangnok by the poetry is an exceptional aspect of discourse since there is no more effective way to express such many contents in condensed way as poetry. Thus it could be said that the responsive poetry in Yeonhangnok is an exceptional way of discourse by means of poetry.